

서스국 백성은 물론 귀천하고 이압호로 지나가는 반드시 레를극진이행되만
 일 일호라도 공순치아니하면 죽을죄를 면치못하리라 하였스니 엇지하여야
 도홀는지 이럼으로 여러사람이 요란함이로소이다 설파에 처량강개함을 금
 치못하느니라 유림척로 이 말을드르매 피가 설어나 장차 큰일을 주의하는
 사람이라 짐짓 노기를 감추고 화평호말노 써 위로하되 과연 이러할진디 첨
 존의 분함이 맛당하도다 문득 로인을 디별하고 직관에도라와 이일을 생각
 함이 을적호 마음이 풀니지안터라 이적에 예스룩이 서스에 이국당이잇서
 국가를 회복할뜻으로 무리가 자못평정함을듯고 헤오디 이 무리를 진즉 제
 어하지아니하면 반드시 후환이되리라 하여 수일 정신을 허비하여 한 모척
 을 엇은교로 이 나모기동을 길가에 세워 그우에 사모를 싸우고사람마다경
 레하는 전령을 붓치고 군스를 보내여 비밀이 탐지하되 만일 거만할자면이
 는 분명 슈상호 사람이니 곳 잡아 물으면 이국당의 근본을 가히 알것이오
 혼변 발각하면 멸망함은 여반장이라 하고 이 법을 힘호지 오류일에 혼사
 람도 감히 거역지못하고 지날때마다 머리를 굽히여 공순이 경례하니 예스
 룩이 문득 대희하여 날으디 서스국 인승이 저러듯 어리석고 약하니 엇지

제나라를 회복하리오 소위 이국당이라함은 진실노 헛말이라 내 무슴근심이
 잇스리오하고 인하여 술을들어 취도록 마시며 못내길기더라

차설 유림척로 직관에 도라와 생각할수록 분함이 측량치못할지라 결단코
 성스를 불고하고 그 기동압해가서 경례치아니하면 반드시 무슴일이잇슬것
 이니 내 한번 시험하리라 하고 부즈 두사람이 쌀나아가 그곳에 당하여
 삼켜보니 기동놈기가 심여장이오 그우에 모즈를 씨웁스며 그아래 경례하
 는 문즈를 붓쳐엇거늘 두사람이 거만호 모양으로 보기를 다함의 언언이지
 나니 파슈하는 병당이 내다려 힐문호되 너희가 감히 법을 범하니 참담대
 하도 다 유림척로부즈 문득 디답호되 무지호도적이 무슴법이잇스리오하
 고 곳 손을 움작이어 기동을 잡아 한번 들어치니 벽력호흔 소리나서 기동
 이 썩기어 두도막이되는지라 군스가 크게 놀나 호각을 부으니 여러놈이
 일제히 일어나 잡으랴하거늘 부즈 두사람이 조곰도 두려워하지안코 락연
 혼거름으로 나아가서 주먹을들고 팔을 두루는곳마다 물결호치 호혀지는
 지라 그 군스가 망망이 도망하여 예스룩에게 고하니 이때 예스룩이 정히술
 을잡어 스스로 위로하며 저의의모척을 칭찬하더니 군스의 급보를듯고 대

경대로하여 무수한 군마를 일으키어 천히 거느리고 성화궐차에 위싸니 군
 스도 간홀뿐더러 괴계가 또한 날이니 유림책로의 적수공권이 었지 비교하
 리오 무가늠하라 잡헌배되었스되 조곰도 경동차안코 도로혀 크게 소리하여
 우스며 날으되 영웅의 수단인 오날날에 나타나리로다 여러사람이 머리를
 굽혀 타식하되 죽기를 름하여 두렵지아니하니 참 천고 괴남조로다하며 무
 수히 이적히 내이다라 예스룩이 이의 유림책로를 사로잡으며 만심쾌락하
 여 곳 심문을하시 서안을치며 쉬지저왈 너갓치 천한놈이 감히 법을거역하여
 관장을 룡명하며 관병을 구타하는노가거늘 이말을 혼번 드르매 몸을소수
 어위풍이름를하고 살피 등등하여 소리를 가다듬어 쉬지저왈 강도 일이만
 아 우리도디를앗고 우리인민을 존해하여도 오히려 부족하여 이갓치 천고에
 업논 악한 형실을 하는나 우리부조 오날날 이곳에 죽어 여러동포의 분함
 과 슈치를 씻고저하노니 죽이라하거든 죽일것이니 무슴잡말로 영웅을 곤
 육하는나 예스룩이 이말을 들은이 이국당이 분명함을 알고 더욱 대로하여
 죽이라하니 유림책로의 부조는 오직 목을들어 죽기만 기도리더라 이때 일
 이만 래조 아로파 방안에잇다가 소리를크게하여 쉬짓되 저놈의 일함을 드

른지 오리더니 오날 스스로 죽을사에 나왔스니 누를 원망하리오 곳처참
 하라 예스룩이 문득 깃거워 말하되 천세는 과도히 노하지 말으쇼셔 혼묘
 혼법이 잇다하고 유림책로를 향하여 날으되 내드르니 네가 활을 잘 쓴다하
 니 이제 살길이 잇도다 유림책로 왈 무슴일이뇨 예스룩이 날으되 네조식을
 결박하여 안치고 그 머리우에 과실 혼기를 노할것이니 네가 수빅보받게서
 그 과실을 맞치면 너희 부조가 다 죄를 면할것이요 만일 실수할면 네조식
 은 네활로 스스로 죽임이니 혼함이 업스려니와 너도 살기를 었지못할것이
 니 너희 부조가 살고저하거든 내 말한바를 거역지 말지어다 유림책로 이
 말을 듯고 혜오되 내가 바록명궁이나 조곰실슈하면 내아들을 내가 죽이는
 것이요 또한 나도 죽을지라 좌스우량하다가 혼연 혼계교를 생각하고 스스로
 날으되 내가 본리 가진 활살이 잇스니 다함이 혼번 쏘아 과실을 맞치면 살
 길 이 잇거니와 만일 맞치지못하면 부조 혼가지 죽을뿐이니 내몸에 잇는
 활살로 저츠발하여 예스룩을 쏘아죽이면 쾌하고 죽이지못하더라도 나죽기
 는 일반이라 뜻을 결단하고 예스룩을 향하여 왈 내말이 이와갓하니 모름이 활
 과살을 보내여 영웅의 수단을 구경함이 가하니라 예스룩이 곳 좌우를 명하여

주교 활과 살을 유림척로의 부즈를 각각 분비하여 거행하니 이때에 원근사람들이
 이모다 구경할시 천고에 희한일뿐 아니라 저 부즈의 엇더흔 형상과 활쏘
 는법이 엇더흔고 사람마다 민망하고 착급하여 엇지하면 도홀고하며 울치안는
 이가 업는지라 유림척로의 부즈는 오히려 혼연이 웃스며 날으되 그디들은
 부지럼시 샹심하지 말지어다 엇지 눈물노 내의 목심을 구원하려오 내가 죽
 기를 겁하면 반드시 이일을 행지아나하리로다 청컨디 그디들은 몸을 앓기
 지 말고 나라를 회복하여 내 뜻을 일우라 이때 이미 활쏘 시간이 당하였는
 지라 예스륙이 뒤샹에서 호령하되 어서 속히 거행하라하니 화륙타 업해 혼군
 스가 조롱하는 말로 날으되 잠시간이면 녀라국에 들어갈것이니 네 녀라대
 왕을 보거든 말하기를 네 아버가 너를 이긋치 죽였다하여라 아버로 지식
 을 죽이는것은 나도 위하여 불상하도다 말을 맞지못하여 화륙타 크게 소
 리하여 썩지쳐왈 내 비록 불행하여 죽더리도 하늘로 올라가 신령의 도음을
 엇어 너 개긋흔 도적을 멸할것이어늘 엇지 구구히 녀라국을 향하리오 하는
 소리가 사람의 정신을 놀리는지라 유림척로 활을잡고 화륙타를 향하여 쏘
 니 무엇이 쌍에 떠러지는지라 서스국 여러사람들이 일제이 곡성이 랑조하

며 날으되 우리나라 영웅 호걸이 죽었스니 이뒤에 누가 능히 그 뜻을 이어
 나라를 회복하며 우리가 산들 무엇에 유익하리오 찰하리 썩라 죽음만 못하
 다하며 못니 슬허하더니 홀연 손벽치며 웃는소리 우뢰긋흐며 칭찬하되 귀
 이항도다 유림척로의 지쇼여 천금긋흔 귀훈영웅이 일호도 상차 아니하엿스
 니 진실노 하늘이 도으샤 살림이로다 예스륙이 슈염을 흔들며 은혜가 잇는
 드시 유림척로를 향하여 날으되 내처음에 너를보매 오직 일기농부라 차마
 스스로 죽이지못하여 짐짓 이러함일러니 엇지 이긋흔 지쇼를 료량하엿스리
 오 만일 너를 노와보니면 반드시 여려호걸을 체결하여 큰일을 도모할것이
 니 우리가 엇지 평안하리오 이긋치 슈작할때에 예스륙이 삼이흐르며 정신
 을 슈습지 못하거늘 유림척로 그 모양을보매 우습고 가공하여 압해나아가
 크게 소리하여 날으되 대장부 세상에나서 도흔 일음을 후세에 전치못할터
 이면 찰하리 악한일흠이라도 전함이가하거늘 네 생각컨디 저칭 영웅이라하
 나 겁도만코 슈단도 업도다 엇지 이긋흔 쇼쇼일일에 경동하고 녀시업스니
 참 우습도다 오날 활쓸때에 내가엇지 료량이업스리오 내 진정을 말할것이
 니 저셰이 드르라 다행이 과실을맞치면 지식을 살릴것이요 만일 불행하면

부즈—한가지 죽을것이니 이 디경을 당하어나의 주의호바는 처음에 과실을 맞치면 도커니와 만일 불행하면 처치 내몸에 잇는활살노네 목숨을 취하려 하엿더니 다행이 무스하엿스니 진실로 너를위하여 하례하노라 예스룩이 이말을 들고 다시놀내여 썩지져왈네 불죽하마음을 품어 당당하 우리를 업수히 녀이니 곳 멸하지 아니하면 장리 대환이되리라 하고 드덕여 라졸을 명하야 하옥하 연후에 예스룩이 스스로 생각하되 저 부즈를 곳 죽이면 저의 동류가 그 원슈를 갑흐라고 모다 와서 겁칙할것이오 죽이지아니하면 무궁하 화를 이룰것이니 장츠 엿지하리오 좌우로 생각하다가 홀연 흔게척을이어 크게깃거왈 그 부즈를 극나우다 짜으로 잡아보내었다가 가만이 죽이면 진실로 묘흔지라 그러하나 빅쥬에 잡아보내면 이목이 번나하여 소문이 랑자 할것이니 밤이 깊고 사람이 고요한때를 기다려 큰 벼를엿어 수로로 좃차가면 그 종적을 뒤가알니오 곳 군스를불너 조쳐홀도리를 비밀히동하야 밤되기를기드리더니 어언간에 푸른연기는 저녁정기를그리고 여러새는 깃드리를 닷도는지라 예스룩이 꽃피구를 차려군스를 거나리고 큰 벼를준비 하야 유림척로의 부즈를 이설어 비에실고 예스룩도 또한 갖치비에 올라길

을 썩날석 고요한 물결은 비노리를 화답하고 청명흔 하늘빛은 물결을 인도하는지라 홀연후운이 이려나서 바람소리를응하여 락디를뒤는듯 물결이 차는곳에 티산도 가이 지당차못하거든 비가엇지 온전하리오 사람의 성스가 경각에 급흔지라 예스룩이 혼불 부신하야 황망이 여러군스를 향하야 근청하되 뒤 능히나들 구원홀고 맛당이 중상하리라 슈십명군스가 다만 하늘을 우러러 살기만발썌이오 속슈무척이라 홀연한사람이 크게 소리하야왈대인은 넘어근심말으소서 저 죄인이 어려서브터 활쏘기와 비부리기로 유명하니 한번명하야 시험함이도홀듯 하여이다 예스룩이 곳 유림척로를 청하야이로되 내가 능히나와여러사람을 구원하면 너의부즈를 무스이 방송할것이네 의향이 엿다하노 유림척로— 밋쳐디답지못 하야서 화륙타— 크게불어왈 부친은 그놈의 간사한말을 밋지못할지라 대장부의 혼말이 천금로치 소중함을 알진디 과실맛칠때에 우리부즈를 이의방송할것이니 엿지 또 이디경에 이르리오 하며 두눈에 번기불이 이려나고 이를 갈며 예스룩을 향하여고기를 먹고즈하는지라 유림척로— 진짓 웃고 그 아들을 돌아보며왈 너는넘어 왜래이 말지어다 나도 료량이잇노라 화륙타 또 디답하되 부친은 저놈의허

망훈말에 속지말으소서 우리부지는 서스국에 등한훈사람이라 이물에 죽어
 도 관계치안일뿐더러 또훈 의리에 죽는것은 죽히영광이라 하려니와 저놈의
 성스는우리나라 홍망이 달려스니 혼변 죽이면 나라를 회복할것이오 원슈
 를 갑흐리로소이다 유림척로 헤오덕아직소년혈과라 분훈싱각만하고 압일은
 알지못하도다 문득회답하야 이로되 너는아직 말하지말지어다 내가 장차방
 법이잇노라 말을맛지못하야 예스특이 우슴을먹음고 군스를명하야 유림척로
 부지의 칼을벧기거늘 이씨두사람의 쾌락훈 마음이비견디 룡이운우를 엇어
 하늘에오른듯흔지라 꽃 비머리에 나가 로를잡고 바람을 몰아물결을 헛차니
 비록 풍량이 위급하나 비가살코타야 죽하 념려함이업슬지라 이때풍우가 오
 히려 곳치지안코지척을분별하지못하느디 유림척로 훈계교를싱각하야 극나
 우다로 가지안코진짓 아이타로향하야 비를모라 언덕에당함이문져 화류타를
 비에나려눅코비밀히 부락하되수풀가온디 몸을은싱하라고다시비를 이설어
 수십보 가다가 지괴도 또훈 언덕에 뛰여 올라산꼭을향하야 종적늘 감슈니
 그 비의복션음과 사람의 상음은 도모지 관계할것업는지라 그때에 풍우가
 기이고 물결이 고요하거늘 예스특이 비로소 정신을 슈습하야 지셰이 슬퍼

보니 유림척로 부지가 간곳이 업거늘 분과 대발하야 곳 군스를 명하야 비
 를져어 언덕에 올라 그 족적을 탐지할시 예스특이 홀노 거름을 지축하야
 아이타로 향하야갈시 마음이 착급하고 노기가 발발하야 괴로움을 싱각지
 안코 부슈이 쓰르니 이목이 화홍하고 쓰이 비코흐며 또훈 길이 험하야 힘
 보하기 극나흐썬더러 폐일에 한번도 지나지 못하 곳이라 동서를 분별치못
 하야 놓흔언덕과 깎흔수풀에 그 끈궁흔 헛적은 가이 사람으로 하야곰 두
 려워 홀니라 석양에 지저귀는 새우름은 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시내길에
 나무하늘 초적성은 저문길을 지축하니 날은이의 저물고 길이또훈 궁진하
 니 이씨를 당하매 영웅이라도 오히려 심회를 감동하야 눈물을 지으려든
 앙몰며 예스특이코호이성으로 제쇄하늘 바를 일우지 못하고 이디경에 이르
 려스니 엇지 후회하며 차담하늘 싱각이 업스리오 각설 유림척로 산곡에 은
 신하야 감히 전진치 못하고 날이 또훈 황혼이라 그 아들이 어디곳에 은
 신하였는지 찾고자하야 반황하다가 홀연 놀나 브라보니 홀곳에 불빛이 이
 러나며 사람소리 점점 들니는지라 모음에 명백히 싱각하고 손가락을 굽혀
 지셰이 룡양하니 과연 이국당으로 더브러 군스일으키는 날이 당하리라 깃

북을 이고지 못하여 곳 슈림식이로 향하여 그 아들을 차일식 이때 회록타
 1 기쁜곳에 잇다가 들리는 수리를 듣고 예스룩의 이마가 쫓는가 의심하여
 점점몸을 감초니 유림척로 1 그아들을 보지못하며 마음이 심히 착급하여
 쉬파람흔 곡요를 불어찾는 쓰을 겨우니 회록타 1 그부친이 오죽을 알고
 연망이나와 손을 서로잡고 서로위로 호후에 회록타를 향하여 날으되 너는
 오날 괴약을 생각하너나 우리의국당의 거스홀 괴약이 정히 오날이라 내
 약가 산골에 잇습제 불빛치 조오하니 이는 반드시 군호를 서로 통함이라
 우리반비 그곳에 나아가 여러 사람으로 동심합력하여 예스룩을 잡으면 진
 실노 쾌하리로드다 인하여 길을 떠날시에 이날밤에 괴운이 청명하여 공중에
 그득흔 들빛촌정히 사람의 안길을 인도하는지라 부조 1 하가지정하여 그곳
 에 다다르니 이때에 아로나 1 유림척로 부조의 위리홀을 듣고 바야흐로 군
 스를 몰아 구원코조 능더니 호여이 그부조 두사람이 진전에 음을보고 반
 신반의 호여 감히말을 발하지 못하다 그부조 1 일제이 소리를 그쳐하며
 압흐로 달려와 손을 잡거늘 비로소 죽지아인줄 알고 비희 표집하여 군막
 에 이설고 드러가 왕스를 크게 설화하니 아로나 1 청파에 놀린사람이 등을

적시는지라 손벽치며 칭찬하되 형이나라를 회복하고 범성을 구원코조 향
 는 정성이 지극함으로 함덕에 빠졌다가 오허려 살기를 도모하였스니 이는
 진실노 하늘이 감동하샤 우리를 도아 큰 일을 성공케 할이라 하고 인하여
 술을들어 서로 권하며 달을 대하여 회포를 통창케하니 사람마다 유림척로의
 부조가 죽을디경에 삼아음을 보고 각각나와 위로하는 술을 권하고 인하여
 유림척로를 향하여 일장연설하기를 청하거늘 유림척로 1 스양치 못하고 단
 에 올라 레필후에 응장흔 목을 열고 류슈조흔 소리를 발하니
 말마다 근절하여 인심을 격동하는지라 또 날으되 내가 몸을 버
 서나가만이 도망하였스니 예스룩이 반드시 급히살을 것이요 또 료량
 권디 제가 아모산을 지나 아모길노 좃츠 올것이나 내활을 슈습하여
 길가에 숨었다가 한활살로 그놈의 목숨을 취하면 이는천국의 다행이오 백
 성의 복락이라 하노니 여러분은 동심합력하여 고국을 회복하고 원슈를 갑
 혼연후에 태평동락하기를 근절이 바라노라 설파에 만좌제인이 손을차며
 칭찬불이하고 다시술을 논호와 권하며 즐기니 들의소리가 새벽빛출 지축
 하고 북은 날빛이 자는사람을 일세우는지라 유림척로 1 문득 활과살을 속장

하고 무리를 향하여 말하되 내 이길에 그놈을 죽일것이니 청컨디 소식을 기다리라고 썩썩한 괴상으로 산골을 향하여 떠나니라 이적에 예스특이 유림척로의 종적을 아지못하여 향로밤을 지낸후에 또 싸를시 슈고를 생각지 안코 동서 분주하더라 이적 유림척로 길가에 은신하였다가 예스특의 오는것을보고 빨리 혼 활살을 말하여 정이 그 머리를맞치고 지초소와 가슴을 썩치니 숨는다 예스특의 목숨이 다시 어긋곳에잇는노 유림척로 깃뿔을척량치 못하여 문득 길가에 큰돌을향하여 괴룩하되 이곳에 피란할과 이곳에 도적 쥬인일을 려려히 괴룩하고 인하여 노리를 불으며 도라가니 여러 무리가 그 저세함을듯고 썩듯 날듯 추추며 노리하니 그 길거함을엇지 다 괴룩하리오 홀연 한소년이 소리를 크게하여 이로되 오날 비록 예스특을 죽였스나 그군스 반드시알고 아로피에게 고히여 무슈한 군스를모라 우리를 잡으라할것이니 우리가 만일 예비치안코 불의지변을 당하면 두리건 디 저군스를 당치못할가 하노니 철조은 장초 엇지하랴하닛가 모다보니 이는 회특이라 아로나 곳 디답하되 그말이 과연 합당하도다 우리가 밍세코 정신을설치어 원슈를멸하여 고국을 회복하리로다 이에 군량과 군기를

이노리를 맞치미 한사람이 불르면 천만인이화답하여 사람마다 용기가발발하여 칼을춤추며 장을잡어영접하는자 길을 려하니향하는 곳마다 인심이바람을 좇차 응하는지라 아로가문에 이르러 일이만 군스로더부러 맛나미 유림척로 군병을지휘하여 사방사 단진을베풀고 손에 한쌍도치를들고 머리에 순은투구를쓰고 몸에 황금갑을 입고 섰스니 위풍이 발발하여 기이 일터영웅이라 할지라 진문에 나서 크게 불려알 내의 무리는 개곳튼 종조라 죽을과약이 당하였스되 오히려 빨라나와 항복지 안코 무수한 성명을 다 죽이기를 기들이나 아로파 이말을듯코크게노하여 진문을 열고 나오니 손에는 조용검이요 몸에는 일일갑이라 크게부짖어 이로되 너의 무리가 감히상국을 업수히너겨디덕코조하노뇨 너의조상도 무릅을 굽히여 소와 말로리 우리를 섬겨거든 하물며 우준흔 물건이 용맹도업고모척도업시 오죽칼뿔에 원혼만 될지니 만일손을묵거 항복하여 너의조상의 뜻을 본받지 안이하면 일절함물하여 한군스도돌아가지 못할것이니 그씨에 후회흔들 무슴유익함이 잇스리오 아로파가 제나라이 크고 군스만을 밋을썩이요 던시와 인심을 살피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방자하여 군스를몰아 짓치거늘 유림척로 한번보미 교만하고 또흔

여러군스가 괴강이 업는지라 심중에 크게 깃거하여 서로 마져디덕홀시 슈
 십여합에 승부를 난호지 못하고 날이 또 혼황혼이라 피츠 군스를 짓고 잇
 은날 또 조웅을 벌단홀시 일이 만군스는 오죽살기를 탐하고 죽기를 두려워하
 니 엇지 이국당의 용맹잇고 성스불고하는 군스를 당항리오 다만 도망홀성
 각 만 잇는지라 아로피 - 형세위리함을 보고 혼불부신하여 두셔를 츠리지
 못하거늘 유림척로 - 그덕슈가안인줄알고 군스를호령하여죽기를무릅쓰고쫓
 치니 덩히 놀빛은 침침하고 바람소리흉흉한디 회칼은 번기를 요동하고 강
 홀 활살은 구름을 헤치니 진실로 피츠를 불분하고 성스를 관결홀씨라 벽력
 쏘티 진동하며 풍우쏘티 모라가니 제 비록 수천명이나 밍호압해 닳는퇴기
 와 쏘든지라 곳 부분이 짓쳐모라 일이만 디경에 이르러 문득 아로피을 불
 러 이로디 나는내의 약속을 드르라 일후는 감히침노홀 뜻을 두지말고 또 혼
 우리나라에 췌어간 권리를 돌려보내면 다행 하려니와 만일 순종치안이하면
 너의 목숨이 시각을 견디지못 하리라 아로피 - 조괴군스의 피함을보고 다만
 머리를 굽혀 디답하되 분부되로 형하리라 하거늘 드디여 약속을 일일히 덩
 홀후에 승전과를 놀피날리고 무리를 거나려 도라오니 서스 빅성이 로소남

녀 업시 일제히 영접홀시 길이 막히고 산이 덩혀 길기는 소리 띠디에 가득
 하더라 유림척로 - 고국에도라와 도읍을 다시 세우고 상중하삼등의원을
 비설하고 공회정치를 설시하니 의위이라호은 무엇이며 공회정치는 무엇인
 고대번지식잇는 사탐을 빼여 한디 모여 의로하는곳을 의원이라하고 정스
 를 다하미 이구이 스스로 쳐다치아코 여러의로이 한다흔 여후에 그 일을
 행하는 번을 공회정치라 호이라 또 사탐을 쓸시 길가에 등을달고 여러사
 란의 소위되로 쓸만흔 사람의 일함을적어 특명하여 일홈만흔자로 벼슬
 을 식이니 전국빈성이 다 혼혼하여 이마에 손을 언췌 경스를일켜르며
 우리가나라를 회복하고 우리가 조상달하로 평등흔 권리를 얻어시며 타인
 의노에트면 하여스니 거처가 평안하고 신활이 길겁도다 국운이 새로으니
 이구과 빈성이 하가지 희락하도다 일켜르며 사람마다 치송하여 이국심이
 가절치안이라 업도다 하더라 국스를 정돈하미 여러사람들이 유림척로를
 공쳐하여 초똥을삼으니 유림척로 - 이의장흔 뜻을 이루미 마음이 가득하고성
 각이 만족하여 결단코 벼슬 의영화를 스양하니 여러 사람이 비록 사랑 할
 여 권하고 만류하되 굿이 나가지안코 고향에도라와 산림에 자취를 의지하

니 책을 더 하미 성현으로 더 브러 벗을 삼고 벗을 갈미 처조와 한가지락을 일
 우니 가히 평디신선이라 하리로다 세월이 사람을 지축하여 늙음이 장초
 이를반성의 분주함을 생각하니 국가를 위하여 수고를 스양치안코 나라를
 회복하여 인민으로 더 브러 티평을 누리니 백성된직분을 만분지일이라도 갑
 하스디 영웅의 기운이 오히려 쇠하지 아니하고로 스방을 차지하고 세계를
 삼킬것이 근절하니 이는 고금영웅의 셋섯한일이라

각설유림책로 창자에 그득한회포를 풀지 못하여 죽자망해로 헛흔거름을 지
 어 풍경을 구경하여 심스를 위로할시 아츠으로 브러 황혼에 니르러 문득
 아를스산에 올라 눈을들어 스방을슬퍼보니 우흐로 대서양이오 아리로 디중
 히라 저문기운은 삼삼하고 늦은바람은 슬슬흔티 백운은 련락하여 산으로
 도라들고 락일은 몽롱하여 물에 잠기느니라 허다한 경치를 구경하미 강기
 혼 심회를 더욱 금치못하니라 인하여 산에나려가며 탄식하되 내가 천고영
 웅의 스적을 상고하면 처음에는 흥상 곤궁하여 뜻을 풀지 못하고 타인슈육
 을 밋을디경에는 내가 당할듯하여 피가설코 분격하다가 그뒤에 후과회를
 었어 운수가 통달하고 스업을 성공할때는 내가 또흔 그 사람을 위하여 깃

거함을 스스로 추량치 못하였더니 생각건대 이몸이 당년에 일들 일우지 못
 하고 위티함을 면치 못할때에 사람의 우음만 취할가 념려하다가 오날날 황
 려이 하감하샤 고국을 회복하고 일성의 장훈뜻을 일우었스니 죽히 스스로
 위로할죽하도다 왕스를 생각하고 단식할제 홀연 후운이 니러나며 풍우가
 대작하니 유림책로 이 정형을보고 문득 쌀리 짐으로 도라갓더니 홀연 늙
 은병이 침노하여 상에 눕고 일지 못하니 슌하다 대장부 세상에 거하여 직분
 을 다하고 스업을 일우었스니 가히 쾌하다 할것이요 병세가 이곳치 침중하
 니 진실노 사람의 성스는 하늘이 명하시느니라 의원과 약이 었지능히 구원
 하리오 엄엄한 기운이 서산에 걸린날과 맞은지라 삼시간에 모호할말노 그쳐
 즈를향하여 날으니 무수한 던신이 구름을 타고 상압해 일으러말하되 그티
 가 나라를 회복하고 백성을 구원하여 장부의 책임을 다하였스니 반드시여
 한이업슬지라 모름이 인간을 하직하고 던상에 올라가 쾌락한 세계에 거하
 라하더라 말을 맞치지 못하여 눈이 아득하고 기운이 진하니 처조의 이등함은
 말하지 말고 전국 백성이 남너로쇼업시 황황 분주하여 부모초상을 당함은
 고상중하삼등의원파 이국당 여러장사들이 다 쇼복하고 나아와 통곡

으로 묘상하고 인하여 장스홀치 곳곳이 제물이요 스방에서 호락하는 사람이
 이 진실노 서스국 기벽이리로 처음보는비라 아름답다 유림척로여 살아서
 는 국가를 회복하고 백성을 구원하여 사람마다 스랑하고 집집이 칭송하며
 죽어서는 뜻다운 일흔이 천하에 이목을 진동하니 비록 천조의 부귀와 왕
 후의 공명이라도 가히 더브러 비교하지못할나라 아로나 여러 영웅과 전국
 인민을 거느리고 무덤압해 나아가 제스홀치 제문일장을 지어 여러사람으
 로 더브러 소리를 한가지하여 분명이 일으니 그 제문에 흥였스되
 시운이 불행하고 국가가 위태홀이여 사직이 기우러지고 백성이 도탄에
 들었도다 뉘능히 고국을 회복하고 원수를 물리칠고 약하고기를 강흔놈
 이먹음이여 궁하면 반드시 통함이잇도다 란리가나야 충신을 알음이며 하
 날이 영웅을 내었도다 오직 성스를 불고하고 강흔 도적을 물리쳤도다 가
 륵흔 사람의 뜻세움을 생각하니 결단코 몸을 죽이여 의리를 일우었도다
 장흔뜻을 임의 갑혀심이며 국가를 회복하고 백성을 구원하였도다 옛말
 에 일러스되 어진자는 반드시 상슈하다 흥더니 그되는 엇지하여 돌연이
 인간을 하적하였노요 오려를 향하여머리를 도리키니 산은세나고 물은맑

엇도다 이 사람의 자취가 망연홀이여 구슬웃든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도다
 하늘기둥이 썩거짐이여 풍우가 쇼실하도다 한사람이 경스가 잇심이며
 억쇼 백성이 험입엇도다 영웅의 일심경영이여 이때에 비로소 이루엇도다
 공의한번 죽음이 다시여한이 업심이며 만년에 썩지안일터를 지엇도다
 대업을 성공하고 도라감이여 천교에 뜻다운일흔을 머물러도다 공의저
 분을 이의다 흥였스니 공이무엇이 슌호리오 양양흔 괴족은 독립의빛을
 날리고 정정흔 쇠복은 자우의소리를 울리는도다 서스국백성들이 비로소
 잠을제였심이며 공의도으심을 바라노라 오호의지상향
 임기를다함미 서로유림척로의 평성스업과 일단충심을 무수이 칭찬하다가
 드디여 손을난와 작별하니라 각설서스국 조영사람들이 유림척로의 천신만
 고히여 나라회복흔 정성을 본받아 힘을다하고 마음을 극진이하여 정스가
 크게다스리고 곳곳이학교를 열고신문사를 비설하니 백성의지혜가 날마다
 열리며 이국하는 생각이스스로 나탄하니 무슴일을 작정할때는 상중하의원
 에 틀어가 공정함을 좇쳐일을판단하고 합당함을 살피여추호도 부정흔일이
 업스니 백성이 점점강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워 날로진보할썌더러 또흔 각

국을 엿볼형제가 잇스니 여러나라이 다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서로왕티 하며
 명세를 밋으며 언약을 세우고 지금각국의 적십의회와 만국공회와 만국
 여동맹회는 우레사지라도 다 서스국이 주장이오 또 산천풍경이 절승하
 여 봉리선경과 맛은고로 각국의 구경하는 사람들이 명승지디를 의론하미
 반드시 서스국을 일꺼르니 진실노 일홈이 동서양에 가득하고 또한 빅성
 이 가끔인축하여 쾌락한 괴상이 사람으로 하여곰 한번만보면 그 문명정치
 와 풍속인심을 칭찬안이리 업스니
 못노라 여러 사람들이여 서스국에 이일이엇더하뇨 아지 못개라 우리대한
 사람은 어니날에 이긋리 쾌한디경에 이르리오 생각하건디 서스국의 토디
 와 인민이 우리대한의 절반이로디 오히려 강호 나라를 안이섬길뿐 안이
 라 또한 능히 발연이 독립하여 강국으로 하여곰 두렵게 하니 엇지부럽지
 안이하랴 슬푸다 우리빅성이여 안으로 정치의 압제함이 심하고 박으로 외
 국의 핍박이 급하여스니 이디경을 당함의 엇지절동호는 생각과 분한마음이
 업스리오 원컨디 사람마다 분발하여 유림척로의 스업을 효추하여 이국심
 을 길러니고 괴회를 인하여 티평을 도모할지이다

빅고별특

- 본서관에서는 뇌외국신구서적을광구슈입호와학교슈용을공급함
 - 본서관에서는 각종서적출판소와특별호약조를당하고공부하는이계군
 조의항도록무슴서적이던지청구하는이로슈용함
 - 본서관에서는 노우편으로청구하는이서적은비달우료를본관에서자당함
 - 본서관에서는국니각처잡지월보를일절취츄함
 - 본서관에서는부속할판부를특별하고각종명첩과인쇄를신속하고지럼
 하게슈용함
 - 본서관에서는좌기서류를발미함
- 종교, 역사, 디리, 정치, 법률, 실업, 경제, 어학, 과학, 소설, 문예,
 등서류와각조교과서류
- 본서관에서는각항학교용품도발미함

릉희원년십월삼십일인쇄
릉희원년십일월십일발행

定價 金 十五 錢

번역자

김병현

황성박문서관

발행자

로익형

황성남덕문덕상동

관권
소유

발미소

로익형칙소

인쇄소

정동활판소

